

교 수

장 일 순
(사회과학대교수·사회학)

14대 국회의원 총선을 바로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대학의 지성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를 과연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이성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여러 정보에 의하면 이번 국회의원총선의 입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였다는 사실이라는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엄청난 금품으로 유권자들을 매수 한다는 근거 없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을 접함으로써 우리는 제일 먼저 선량이라 자칭하는 그들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주고 있는것은 현존 정당 및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해서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 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아직 기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니 이는 충분히 이해 할만도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우리사회를 총체적 위기로까지 보고 있는 현상황 및 시점에서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극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대학의 지성인들이 말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수록 문제해결이나 나라를 구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

학 생

요즘은 어디를 가나 선거 열풍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투표권이 없었던 지난해가 저 나이에 멀게 단숨에 임시 공출로 느껴졌던 선거권이 다가오자 근래에는 나의 주변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처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선거로서 참은 모로겠지만 선거가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 각 지역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선거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그런 선거 공약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럴까?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불을 보듯 뻔히 알 수 있는 무리한 전횡 가능성은 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이 당선된다면 그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이루어질까? 사당발식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을 회유하는 것과 크게

최 지 훈
(국문·2)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선거풍토는 흑색선전, 정치인들사이의 불신, 지역감정으로 얼룩져 있어 한표를 행사해 주며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힌 후보가 당선 후에는 그의 허리를 뺏박하게 고장시킨 채로 국민을 배반하는 경우를 종종 체험해 왔다. 이로인해서 후

다. 그렇다면 조국의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길은 무엇인가? 아마도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길에 안개가 싹다. 만일 그 자금을 기술개발의 투자에 들이면 훌륭한 설비의 연구실을 만들 수가 있다. 당 하나를 만들어 경제 재건을 외치고 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재건에 더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문제점

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일찍이 Schumpeter 는 민주주의를 "한표를 위한 투쟁(Kampf um eine Stimme)"이라는 국민적인 표현으로 정의를 내릴 정도로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한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투표를 바로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표의 의미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적 무관심, 곧 투표의 기피나 포기 역시 그 나름대로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오늘날

귀중한 한표 값있게 써야

와 자제로서 입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사회 그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세력이나 집단은 그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자각있는 지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번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에 있어서

은 개인 보다는 정당을 먼저 생각하고 투표에 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중심이 아니라 지난한 개인 중심적인 정치풍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부수적인 정치적 부조리 내지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표가 더욱 값있게 쓰일 것이라 믿는다.

참신한 정책·대안 제시 요구돼

보자와 유권자(국민)들 사이에 큰 벽이 비치고 있으며 이제와는 거의 허물기조차도 어렵게 됐다.

이는 모두의 잘못이다. 사회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을 옹호하는 채색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어 새로운 당을 만들고... 너무도 한심한 일이다. 이번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5천원정도 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유세장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외치고 있

이 없지는 않다. 우리는 흔히 어차피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며,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투표를 할 의사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말로 옳지 못한 생각이다. 엄격한 판단하에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가 있다. 투표율이 저조한 곳에서는 올바른 인물이 뽑히기가 어려우며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도 어

일용직

고 대 환
(본교 일용직 노동자)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곳 저곳에서 모두들 말이 많다. 저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나는 어느당 너는 어느당이니 하면서 여느때와는 달리 관심이 많다. 나 역시도 이번만큼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많이 등장했으면 하는 기대감에 가슴을 조이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나의 생각을 몇자 적어본다. 전두환 정권의 결례하지 않은 폭력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87년 7.8.9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해 나갔으며 국민들 또한 88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두 강세를 중심으로 정권다툼에 목을 멘 야당의 실망스러운 행태는 결국 90년 1월 민선지방의 밀실통합으로 그 본성을 드러내었다.

결국 3당야합은 민자당의 화성고 대대적인 노동자탄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금의 현실이 증명해준다. 본교안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약속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노동법에 명시된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이나 약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동법마저 지키지 않으니 노동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정부의 불공평한 법집행이 결국 학교당국의 이러한 불법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막기위해서 112 범죄 신고가 동원되고, 그동안 법외직의 정권선봉은 결국 노동자들과의 전쟁 선포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역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하며 국회에서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권력나누기, 정치자금나누기의 행태를 보이던 야당세력은 어떤가? 급진적이고 과격한 운동세력과는 손을 뚫었다를 통합 민중당과의 연합공천을 쓴

나의 한표

부하는 등 이제 더이상 노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겠더니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노동자인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달라도 한참 다른 것 같다.

재벌당이라는 국민당 또는 이상하다. 이제까지 자본가로서 노동자 탄압을 했던 정치장이 아닌가. 또한 정부와 친밀하게 잘 지내면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다. 그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이 커갈수록 안정이 필요하고 더 크기 위해서는 경제를 자기 주도하여야 한다. 즉 국가권력을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할 수 있도록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삶에 우리 노동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감싸고 보호한 적은 없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려는 것처럼 나도 노동자를 철저히 대변하는 사람을 찾았다. 과거 선거를 보면 의식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중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을때 그 결과가 어땠는가? 결국 현 정부만 좋아진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현사회에서 형식적인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 선거권마저 포기함으로써 현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주성을 압록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정치 구도 속에서 진짜 노동자를 대변할 세력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가진자들의 정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힘있는 세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력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바로 그것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민자당이 아닌 노동자를 식칼처럼 했던 국민당이 아닌 노동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민주적인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는 것이 내가 선거를 대하는 마음 자세이다.

본교 유권자가 바라본 제14대 총선

총선이 다가 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정치적 참여의 만족감을 그저 머리속에 서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선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뚜렷한 정점도 없이 지위를 찾아가는 총체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는 선거이지만 이미 많기도 많은 본들이 출사표를 던져 놓고 있다.

그들이 목이 쉬도록 외쳐대고 있는 각자의 정치적 비전들을 듣고 있을라치면 황홀하기까지 하는

사무직

나 왕 린
(학과·중명계)

인파속에서 떠돌아 다고 내려야 하는 힘없는 아이처럼 우리의 외치와는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저 유세 속에서 거꾸볼 수도 없게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올바른 가치관, 투철한 책임 의식 그리고 자신감있는 실행력 등 정치에 해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자질을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 지지

한 결 음

책임성 갖춘 인물 되어야

다. 들도 보도 못한 끝없는 공약들이 쏘아붙여 있는 것이다. 선거란 정말이지 정치행위의

왕 린

을 확인해 볼 방법이 철저히 봉쇄된 채로 대기업체 임시시행 치루듯 그들은 공천심사를 거칠

충전을 일주일 앞두고 이곳 저곳에서 모두들 말이 많다. 저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나는 어느당 너는 어느당이니 하면서 여느때와는 달리 관심이 많다. 나 역시도 이번만큼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많이 등장했으면 하는 기대감에 가슴을 조이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나의 생각을 몇자 적어본다. 전두환 정권의 결례하지 않은 폭력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87년 7.8.9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해 나갔으며 국민들 또한 88년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하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힘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염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두 강세를 중심으로 정권다툼에 목을 멘 야당의 실망스러운 행태는 결국 90년 1월 민선지방의 밀실통합으로 그 본성을 드러내었다.

결국 3당야합은 민자당의 화성고 대대적인 노동자탄압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지금의 현실이 증명해준다. 본교안 보더라도 단체협약상 약속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더군다나 노동법에 명시된 임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불법적인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이나 약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노동법마저 지키지 않으니 노동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정부의 불공평한 법집행이 결국 학교당국의 이러한 불법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막기위해서 112 범죄 신고가 동원되고, 그동안 법외직의 정권선봉은 결국 노동자들과의 전쟁 선포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역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민주세력이라고 자칭하며 국회에서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권력나누기, 정치자금나누기의 행태를 보이던 야당세력은 어떤가? 급진적이고 과격한 운동세력과는 손을 뚫었다를 통합 민중당과의 연합공천을 쓴

충전이 다가 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과 정치적 참여의 만족감을 그저 머리속에 서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선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뚜렷한 정점도 없이 지위를 찾아가는 총체적인 평가가 내려져 있는 선거이지만 이미 많기도 많은 본들이 출사표를 던져 놓고 있다.

그들이 목이 쉬도록 외쳐대고 있는 각자의 정치적 비전들을 듣고 있을라치면 황홀하기까지 하는

즐거운 6천분, 아까운 60분

고, 단점은 일상적인 만남이 아닌 주1회 정도의 만남으로해서 신입회원모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의 어두운 일면에 관심을 쏟으며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신입회원모집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있다. 단점의 부각이다.

이유는 화해동아리와 같은 이유이다. 신입생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힘든일을 기피한다. '봉사의 참미'를 운운하는 것은 이제 민망하기조차하다. 자신의 회귀와 환락을 위한 1백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

을 뿐이며 소속당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해 준 공약들을 마치 제복을 입듯이 똑같이 소리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또한 그들의 연설은 국민하고 반향전거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투 무한비판과 인신모욕으로 점철되어 있고 나 아니면 파괴국이라는 협박과 저 사람은 안된다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해야 한다는 식의 제인과 억지자 역겨운 지역감정까지 동반한 채로 깨닫아야 할 무대를 오묘시키고 있다.

이 어려운 때에 그저 믿고 따르고 싶어 지는 충무공 한복춤 찾아 보기와 힘이 든다는 이 무거운 짐달라! 우리는 참 불쌍한 국민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를 반감시키는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문제들을 우리는 유권자인 우리들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극도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이 패배적 냉소주의로 우리들을 멍하게 하고 있다. 현실 정치에 너무 깊이 나섰다가 감옥에 가는 대학생이 있는가 하면 선거여론비트로 일당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생이 병준하는 현연한 현실 속에서 극도의 시민적, 신결여중세아말로 이 나라의 정치문화, 선거의 기능을 해치고 있다.

그래도 선거라는 것이 다양한 색의 다양한 대중의 의사를 결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진정 이에서는 안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활약을 찾아야 한다. 다시 무력한 객체가 아닌 주체적 위상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무관심의 골짜기를 건너 내고 눈과 귀를 열어라 한다.

이제라도 이 아수라장속에서 홀로라도 일어서서 북을 쳐야 한다.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고 여의도를 진정한 민의 대변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혼자라도 북을 쳐야 하는 것이다.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계획

근 거

목 적

○ 지정병원 선정 운영으로 병사들 진단서의 정확한 진단과 발급 유도

정확한 징병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

방 침

○ 지정병원은 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이상의 권위있는 의료시설 중에서 20개 범위 내로 최소화한다. ○ 병역면담 사건과 관련 하여의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지정병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해제한다. ○ 지정병원에 접수 및 특수전역 신체검사 지정병원 지정 병사를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 판정한다. 다만, 타병원 수송경력자 및 1

개월 이상 치료하는 예외로 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의 인원을 제출받아 각종 검사사 이를 대조 확인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판별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각 대학 총(학)장 및 구청장은 대학신문, 반상회보등을 활용하여 지정병원 제도의 필요성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세부추진계획

1. 지정병원 선정 및 위촉

○ 지정병원은 판별 의료시설 중에서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편리 및 시설등을 참작하여 종합병원(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에서 20개의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 지정병원 수는 병상수 200개 이상, 진료과목 전과목인 종합병원으로 하되, 대학부속병원을 선정 ○ 지정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병상수, 진료과목 해당 의료시설에 교과하고 병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병원 위촉 통지서를 제출받은 후 2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 ○ 지방병무청장은 판별 지정병원을 병무청 및 각 지방병(지)청에 병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보고 및 통보

2. 지정병원 인명등록 관리

○ 지방병무청장은 판별 지정병원의 인명(적인) 등록부를 병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비치 관리 ○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의 인명등록부 사본을 각 지방병무청과 상호교환 ○ 선별검사와 판별 지정병원 및 각 지방병무청 산하 지정병원의 인명등록부 사본을 병정서 및 해당과에 통보 ○ 징병관 및 각과장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들 진단서를 참조하여 있어 필요할 경우 당해 지정병원에 확인 또는 조회 처리

3. 지정병원 발행 병사용진단서 참조 처리 업무

지 방 청	연 번	병 원 명	소 재 지	비고
대 구	5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교래병원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함정동 50	
	6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남 진주시 중앙동 4	
	7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진주시 칠암동 92	
	8	의료법인 여남종합병원	경남 밀양시 내리동 1196	
	9	옥곡대우병원	경남 장성군 두모동 363	
	1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시 중구 삼덕동2가 52	
	2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17-1	
	3	경북대학교 동산병원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4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56-6	
	5	동국대학 포항병원	경북 포항시 죽도2동 646-1	
	6	동국대학 경주병원	경북 경주시 1096-1	
	7	안동병원	경북 안동시 용상동 1592-31	
	1	카톨릭의과대학성모자애병원	인천 북구 부평동 665	
	2	중앙김병원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	
	3	카톨릭의과대학성모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동 93	
	4	의료법인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우안441	
	5	카톨릭의과대학성모병원	경기도 부천시 남구 소사2동2	
	6	인하병원	경기 성남시 수정동 3309-327	
	7	중앙병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산 160	
	8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433	
수 원	1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 산동24-3	
	2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 산동24-3	
	3	신원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가동동 137	
	4	의료법인 신의료재단희정병원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산34-1	
	5	의료법인 광명 김병원	경기도 양명동 양명 고동316-2	
	6	교동리병원	경기도 구리시 교동동 244-5	
	7	외정부시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432-16	
	8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촌 101	
	1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학1동 8	
	2	전남대학교부속병원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3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서구 양림동 264	
	4	광주보통병원	광주시 서구 구월동 산213-6	
	5	성공회병원	전남 목포시 산정동 97	
	6	의료법인 성심병원	전남 여수시 동면동 164-3	
	7	근로복지공산사순원병원	전남 순천시 조계동 544	
	8	경동 종합병원	전남 장흥군 장흥읍 전산383-5	
의 경 부	9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교래병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82-1	
	10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 275		
	1	아산재단 정동병원	전북 정주시 정1동 350	
	2	예수병원	전북 정주시 완산 중화산1가 300	
	3	원광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전북 이리시 신동동 344-2	
	4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정주시 덕진 교동 산2-20	
	5	지방공사군산의료원	전북 군산시 금동동 14-1	
	6	지방공사남원의료원	전북 남원시 동문동 171-2	
	7	한국농촌진흥개발원병원	전북 군산시 개성동 413	
	1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대서동 640	
	2	카톨릭의과대학대전성모병원	대전 중구 대동동 520	
	3	대전유지병원	대전 중구 목동 24	
	4	대전신원병원	대전 중구 목동 10-17	
	5	순천향간호병원	충남 천안시 동문동 23-5	
	6	아산재단보림병원	충남 천안시 죽림동 21	
	7	백제병원	충남 천안시 화성동 21	
	8	지방공사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남 공주시 중동 330	
	9	지방공사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석림 666-1	
	10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남 홍성읍 홍성 교동 572-3	
충 청 남	1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청주시 개성동 산 48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사직1동 554-6	
	3	라미병원	충북 청주시 주동동 589-5	
	4	청주병원	충북 청주시 복곡동3가 539-1	
	5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역전동 630	
	6	신라병원(전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 충주병원)	충북 청주시 교동2동 620-5	
	7	제천유지병원	충북 제천시 교동동 666-1	
	8	제천 사육병원	충북 제천시 서부동 10-1	
	9	순천향유지병원	충북 음성읍 음성 읍내리	
	1	한림대학교부속충청선정병원	강원 춘천시 교동 153	
	2	연세대학교 원주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동 162	
	3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	강원 춘천시 호서3동 137	
	4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 원주시 개운동 43-1	
	5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동로 1066	
	1	근로복지공산사정선병원	강원 태백시 정선동 195	
	2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제주 제주시 삼도동 154	